정보

Johannes Brahms: Symphony No. 1 in C minor, Op. 68

개요
작곡가: Johannes Brahms (1833–1897)
작품명: Symphony No. 1 in C minor, Op. 68 (교향곡 1번)
작곡 시기: 현 작품의 첫 확실한 1악장 자료는 1862년, 전곡 완성은 1876년. 1877년 출판 전후에
수정.
초연: 1876년 11월 4일, Karlsruhe Museum 대강당, 궁정악단 정기연주회 . Otto Dessoff 지휘.
대상 범위: 1877년 출판판을 바탕으로 한 네 악장 전곡. 1876년 초연판의 차이는 별도로 설명.
IMSLP: https://imslp.org/wiki/Symphony_No.1_%28Brahms%2C_Johannes%29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1%28Brahms%29

브람스의 Symphony No. 1 in C minor, Op. 68은 네 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 교향곡이다 . 느린 서주가
붙은 첫 악장 다음에 Andante sostenuto와 Un poco allegretto e grazioso가 놓이고, 또 하나의 긴 서주로 시작하는 피날레가 전곡을 닫는다. 이 글은 1877년 출판판을 중심으로 전곡을 다루며, 초연 때와 달랐던 2 악장은 작품의 형성 과정에서 구별해 설명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교향곡의 ‘완성 ’에 날짜 하나만 붙이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놓친다. 브람스는 1876년 가을 네 악장을 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뉴욕 Morgan Library에 남은 자필 총보의 마지막에는 ‘Lichtenthal Sept: 76’이라는 기입이 있다. 그러나 지금 연주되는 Andante sostenuto는 1876년 초연에서 들렸던 악장이 아니다. 브람스는 이듬해 5월 2악장을 크게 고쳐 출판용 원고를 마련했다. 1877년 10월 말 베를린의 N. Simrock가 총보 (판번호 7957), 관현악 파트 (7958), 브람스의 네 손 피아노 편곡 (7959)을 냈다.

현존 악보도 한 벌의 완전한 자필 총보가 아니다. Morgan Library에는 원래 총보 가운데 3·4악장 자필과
나중에 다시 쓴 2악장의 자필이 남아 있다. 1악장과 4악장에는 필사자가 만든 출판용 총보에 브람스가 직접 고친 흔적이 전한다. 초연의 2악장은 총보 전체가 아니라 남은 현악 파트 일부에서 복원된다. Robert Pascall 이 편집한 1996년 신전집은 브람스가 소장하면서 1·2·4악장을 고친 초판 인쇄본을 주자료로 삼아 이
자료들을 대조했다. 1901년 이후 짐로크 후쇄본에는 그 개인본의 1·4악장 수정 일부가 들어갔지만 2악장 수정은 빠졌다. 초판, 초연판, 후쇄본, 현대 교감판을 같은 상태의 악보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체로 약 45–48분이다. Breitkopf & Härtel은 약 45분을 제시한다. 현재의 출판판을 연주할 때 1 악장은 대략 13–17분, 2악장은 8–10분, 3악장은 4–5분, 4악장은 15–18분이 걸린다. 첫 악장 제시부 반복을 지키는지에 따라 전체 시간과 양쪽 외악장의 길이 비례가 달라진다. Pascall이 전한 1876년 Karlsruhe·Mannheim 초기 공연의 기록은 네 악장 각각 14·9·4·16분인데, 여기의 9분은 오늘의 출판판이 아닌 초연판 2악장에 해당한다.

편성

목관: 2 Flöten, 2 Oboen, 2 Klarinetten, 2 Fagotte, Kontrafagott
금관: 4 Hörner, 2 Trompeten, 3 Posaunen
타악기: Pauken
현악: Violinen I, Violinen II, Bratschen, Violoncelli, Kontrabässe

트롬본 세 대는 첫 세 악장 동안 침묵하다가 피날레의 코랄에서 들어온다. 따라서 관현악 전체가 늘 같은 규모로 울리는 것은 아니다. 호른은 2악장 후반에 독주 바이올린과 어울리고 피날레의 전환부에서는 긴 선율을 이끈다. 현악기 다섯 성부와 목관의 맞물림을 들을 수 있는 구간과 금관이 넓게 열리는 구간의 차이가 이 편성의 핵심이다. 초연 때 Karlsruhe 궁정악단은 전체 49명으로 기록되지만 , 그 숫자는 당시 한 공연의
규모이지 모든 연주에 요구된 고정 인원은 아니다.

첫 악장만 있던 시절과 완성 이후

현 교향곡에서 가장 이른 확실한 자료는 브람스가 1862년 여름 Clara Schumann과 Albert Dietrich에게 보여 준 C단조 첫 악장이다. 그때는 지금의 느린 서주가 없었다. Clara가 Joseph Joachim에게 보낸 편지는 현재 인쇄본 38–42마디에 해당하는 첫 악장 주제를 전한다. 이후 14년의 작곡 과정은 단편적인 흔적으로만 남았다. 1868년 9월 Clara의 생일을 앞두고 보낸 짧은 악보 인사에는 피날레 호른 선율의 선행형이 적혀 있지만, 그때 이미 피날레 전곡이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1850년대의 별도 D단조 교향곡 시도를 지금의 Op. 68과 하나의 연속된 초고로 합칠 근거도 부족하다.

1876년 11월 4일 Otto Dessoff가 Karlsruhe Museum 대강당에서 첫 연주를 지휘했다. 브람스는 곧 Mannheim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작품을 직접 지휘했다. 출판 준비 과정에서는 작곡가와 초연 지휘자의
의견 교환도 계속됐다. Dessoff는 3악장의 끝이 짧다고 보았고, 남은 원고에는 그 부근이 출판에 앞서 확장 · 수정된 흔적이 있다. 다만 특정 19마디가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대로 ‘복원 ’되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2 악장의 개작은 더욱 컸다. 초연 때 다섯 부분을 오가던 론도는 1877년 5월 세 부분 구성의 악장으로 다시

쓰였다. 신전집 부록이 초연판을 따로 싣는 까닭은 몇 마디의 장식이 달라서가 아니라, 악장의 되돌아옴과 비례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악장별 구성

I. Un poco sostenuto – Allegro – Meno allegro

첫 악장은 팀파니와 낮은 성부가 C음을 거듭 두드리는 느린 서주로 시작한다. 그 위에서 현악과 목관의 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서주는 1862년 첫 악장에는 없었으며, 빠른 주부에 앞서 악장 전체의 긴장을 새로 설정한다. Allegro에 들어서면 선율이 길게 펼쳐지기보다 짧은 음형과 리듬이 여러 성부에 얽혀 나아간다 . Michael Musgrave는 Clara가 1862년에 언급한 1악장의 얽힌 짜임새가 현재의 주부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악장의 제시부에는 반복 부호가 있다. 반복하면 두 주제군과 종결부를 다시 들은 뒤 전개부로 들어가므로 , 뒤의 피날레에 맞서는 첫 악장의 길이와 무게가 커진다. 생략하면 서주에서 제시부를 거쳐 전개부로 향하는
진행이 더 짧고 곧게 들린다. 이 선택은 악보의 기호만 보고 무심히 넘기기 어렵다. Charles Mackerras는
실제 연주에서는 대체로 반복을 생략했으나 1997년 Telarc 녹음에는 반복을 넣었다. Riccardo Chailly는
반복이 피날레와의 비례를 잡는다고 보고, 두 번째에는 악기 색채를 달리해 같은 음악이 새로 진행하도록 했다. 두 사람의 선택은 같은 악장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서로 다른 답이다.

악장 끝의 빠르기 표시에도 작곡가의 손이 남았다. 첫머리의 Sostenuto는 출판용 필사본에서 Un poco sostenuto로 고쳐졌다. 종결로 향하는 495마디의 Poco sostenuto는 브람스의 초판 개인본에서 Meno allegro가 되었고, 출판사에 보낸 편지에도 이 수정이 적혔다. 악장의 마지막을 처음 서주의 느린 시간으로
되돌리는 것과 빠른 흐름의 속도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다른 선택이다.

II. Andante sostenuto

E장조의 느린 악장에서는 오보에가 선율을 이끌고 목관과 현악이 말을 주고받는다 . 더 어두운 가운데 대목을 지나 첫 재료가 돌아오면 호른과 독주 바이올린이 선명해진다 . 독주 바이올린의 높은 선율이 마지막까지 남기 때문에, 2악장은 첫 악장과 피날레 사이의 단순한 휴지가 아니라 관현악에서 작은 성부들을 가까이 듣게 하는 자리다. 현행 악장은 1877년에 다시 쓰인 세 부분 구성이다. 초연의 다섯 부분 론도에서는 같은 재료가
돌아오는 순서와 길이가 달랐다.

출판 이후에도 브람스는 2악장 초판 개인본의 오보에와 제 1바이올린에 레가토 슬러를 더했다. 신전집이 이 지시를 반영하면서 , 오늘의 지휘자는 초판 인쇄본 한 부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연결 방식을 읽을 수 있다. 현대 지휘자 Johannes Leertouwer는 2019–22년 연주 계획에서 오보에 선율을 엇박으로 움직이는 현악 반주에
단단히 묶지 않고 조금 자유롭게 노래하도록 구상했다. 그가 참고한 것은 브람스와 가까운 시대의 지휘자 Fritz Steinbach에게 배운 이들이 남긴 자료다. Leertouwer의 선택은 악보의 슬러를 기계적인 균일 박으로
바꾸기보다 오보에와 반주의 관계를 들리게 하는 현대적 실험이다.

III. Un poco allegretto e grazioso

A♭장조의 짧은 셋째 악장은 클라리넷이 여는 선율에서 출발한다. 브람스는 여기서 빠르고 격렬한 스케르초를
두지 않았다. 가볍게 움직이는 바깥 부분과 조금 더 활발해지는 가운데 부분이 번갈아 나타나며, 내악장 둘의

규모는 양쪽 외악장보다 작다. 그렇지만 짧다는 이유로 이 악장을 피날레 앞의 장식처럼 건너뛸 수는 없다. Musgrave는 첫 부분이 다시 나오기 직전의 하행 저음형이 피날레 서주 첫머리와 관계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결은 뒤의 어두운 출발이 전혀 새 재료만으로 시작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그의 분석이다.

악보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도 그 짧은 겉모습과 대비된다. Dessoff의 편지와 자필 총보에는 끝부분의 길이를 놓고 수정한 흔적이 남는다. 111–112마디에는 Dessoff가 브람스의 편지 지시에 따라 적은 표기가 전하고, 출판을 향해 종결 가까이에 poco a poco più tranquillo라는 지시도 더해졌다. 초연 지휘자의 실무적인
피드백과 작곡가의 최종 결정이 만나는 악장이다.

IV. Adagio – Più andante – 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 – Più allegro

피날레는 다시 C단조의 느린 서주로 들어간다. 긴장된 시작 뒤 Più andante에서 호른의 길고 단순한 선율이 나타나고, 앞선 악장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트롬본들이 코랄을 연주한다. 호른 선율과 코랄은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장식이 아니라 피날레 주부와 종결에서 돌아올 재료다. 브람스가 1868년 Clara에게 보낸 악보
인사는 호른 선율의 선행형을 보여 준다. 그 날짜는 선율의 이른 존재를 알려 주지만, 전체 피날레의 작곡
시기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에서 현악이 넓은 C장조 주제를 제시한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피날레를
떠올린 청자와 비평가가 많았던 것은 이 선율과 작품 전체의 C단조에서 C장조로 향하는 길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첫 주제가 피날레의 나머지를 혼자 지배하지는 않는다. Musgrave가 설명하듯 앞서 들은 재료들이 다시 모이고, 마지막에는 금관 코랄이 결말을 이끈다. C장조는 서주의 어두운 음향을 단번에 지우는 효과보다, 여러 번 미뤄진 종결이 마침내 닿는 조성으로 들린다.

주부의 빠르기 또한 출판 전에 Allegro con brio와 Allegro moderato ma con brio를 거쳐 현재의 표시로 바뀌었다. 브람스가 non troppo를 남긴 사실은 단순한 표제 장식이 아니다. Mackerras는 주제가 시작되는
약박을 조금 넓게 두고 첫 네다섯 마디에 걸쳐 기본 빠르기로 들어가는 방법을 Steinbach 전승에서 배웠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은 어느 한 음에 임의로 느린 표정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주제가 관현악 속에 자리 잡는 동안 시간을 배분하는 선택이다.

이름이 앞선 음악, 그리고 전해진 연주법

Hans von Bülow가 이 곡을 ‘베토벤의 제 10교향곡 ’이라고 부른 말은 초연 당일의 평가가 아니다. 그는 1877 년 가을 브람스가 출판 전 악보를 피아노로 들려준 뒤 그 표현을 편지와 공개서한에 썼다. 베토벤 이후의 독일 교향곡을 둘러싼 기대, C단조에서 C장조로 향하는 큰 틀, 피날레 주제의 유사성이 그 별명을 오래 살려 두었다. 그러나 초연 직후의 반응은 도시와 악장에 따라 고르지 않았고, 출판 전에 2악장까지 크게 바뀌었다. 작품이 처음부터 하나의 확정된 ‘후계작 ’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후대의 Steinbach 전승도 출처를 분명히 할 때 가치가 있다. Steinbach는 브람스의 교향곡을 지휘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자신의 녹음은 남기지 않았다. Walter Blume는 1914–15년 그에게 배운 내용과 악보 표기를 1933년에 책으로 정리했다. Blume는 1880년대 Meiningen 악단의 현장 단원이 아니었다. 그의 기록을
브람스가 각 마디에 직접 명령한 목록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악구마다 빠르기를 달리하고 특정 위치에서만
음색을 제한하는 연주 전통의 자료로는 유용하다. Leertouwer와 Mackerras가 이 자료에서 각기 다른 실연 선택을 끌어낸 점도 전승의 힘과 한계를 함께 드러낸다.

녹음에서 달라지는 비례

Mackerras와 Scottish Chamber Orchestra의 1997년 Telarc 녹음은 첫 악장 반복을 넣고, 현악의 성부를 또렷하게 드러내는 작은 편성을 택했다. 현재의 2악장과 복원된 초연판 2악장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어, 1877 년 개작이 악장의 돌아오는 순서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비교할 수 있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평자는 투명한 짜임새를 장점으로 보면서도 피날레에서는 제 1바이올린의 무게와 추진력이 약하다고 평했다. 작은 편성이 자동으로 모든 부분에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다.

Riccardo Chailly와 Gewandhausorchester Leipzig의 2013년 Decca 세트에도 초연판 2악장 재구성이
실려 있다. BBC Music Magazine의 Calum MacDonald는 1번 피날레의 넓은 흐름과 트롬본 코랄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Chailly가 첫 악장 반복을 피날레와의 비례 문제로 본 선택을 떠올리면, 이 녹음의 긴 호흡은 개별 악장의 속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두 음반은 같은 판본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다른 관현악
규모와 음색으로 답한다. 초연판 2악장 부록을 듣는 일도 과거의 ‘정답 ’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브람스가 출판 전에 실제로 바꾼 악장의 규모와 반복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주요 자료

Robert Pascall, Henle 총보 서문 및 신전집 비평 주석: 초기 원고, 초연, 2악장 개작, 출판 이후의
브람스 수정.
Brahms-Institut, 작품 목록 Op. 68 및 Morgan Library, Cary 27: 자필 ·필사 악보의 현존 범위와
초판 자료.
Breitkopf & Härtel, 교향곡 1번: 현행 총보의 악장 표제 ·편성 ·소요 시간.

Michael Musgrave, Hyperion 음반 해설: 악장 사이의 재료 관계와 피날레의 주제 ·코랄 진행.

Boston Symphony Orchestra, 교향곡 1번 해설: 악장별 악기와 주요 선율의 진행.

David Brodbeck, Brahms: Symphony No. 1: 초기 공연과 Hans von Bülow의 발언 시점.

Gramophone, Mackerras·Chailly 인터뷰 및 Johannes Leertouwer의 연주 계획: 첫 악장 반복, 2 악장의 성부 관계, 피날레의 빠르기를 둘러싼 지휘자의 선택.
Michael Musgrave, Steinbach/Blume 자료 비평: 후대에 전해진 연주 기록의 성립 시점과 한계.

Telarc/Concord, Mackerras의 브람스 녹음, MusicWeb International의 평: 1997년 녹음의 판본 구성과 비평.
Decca, Chailly의 브람스 교향곡집, BBC Music Magazine의 평: 2013년 녹음, 초연판 부록과
피날레 평가.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24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5:24 UTC by 안준영